

“K-푸드 시대, 음식명의 지역적 변이 고찰-‘증편’의 방언형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조숙정¹

서울대학교^{1*}

crystal89@hanmail.net^{1*}

토론자는 한국 음식과 언어문화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온 입장에서 강희숙 선생님의 이번 발표를 매우 흥미롭게 읽고 들었고 K-푸드 시대에 새로운 한국의 음식문화 현상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 발표는 세계화 시대 한국의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류’의 열풍 효과로 한식(K-푸드)에도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배경으로 한국 음식 관련 언어문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연구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보통 주목받는 김치나 불고기, 비빔밥 등을 넘어 전통음식 ‘떡’을 대상으로 하여 방언학적 연구를 수행한 점도 연구 주제의 다양성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이 발표의 문제의식은 K-푸드 시대를 지향하는 데 있어 고려하고 경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어 중요하다. “K-푸드와 관련된 연중의 인식이나 각종 인터넷 정보들 가운데는 역사적 사실이나 언어적 실제와 차이가 있는 정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 없이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소비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가 가져온 부정적인 기능과 현상의 하나일 것이다. 토론자는 한국 음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확대 재생산이 한국 음식문화가 K-푸드 시대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의 제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발표자의 인식에 공감하며,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문화와 관련된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의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제안에도 동의한다.

이제 토론자는 발표자에게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K-푸드 시대 수많은 ‘떡’ 종류 중에 왜 ‘증편’인가?

이 질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것이다. 첫째, 분석 대상으로서 ‘증편’이 갖는 타당성 또는 대표성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 떡 종류는 그 가지 수가 매우 많다. 한국 음식문화로서 ‘떡’이라고 할 때 ‘증편’ 또는 ‘술떡’을 떠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발표문 (4)에 제시된 한국 떡의 제조 방법에 따른 5종류 중에 증편이 속하는 ‘이병류’는 다른 떡 종류에 비해 주변적인 범주라 할 것이다. 특히 ‘K-푸드 시대’라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증편’의 음식명의 지역적 변이가 ‘K-푸드 시대’ 한국의 음식문화와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분석 대상으로 갖는 의미와 관련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수많은 ‘떡’ 종류 중에 ‘증편’이 K-푸드로서 주목된다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언어문화보다 음식문화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라 좀 사족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발표자께서 인터넷상의 정보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증편’이 어떤 특성을 갖는 떡인지를 공들여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앞의 질문과 관련해서 왜 증편이

주목받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처음에 한국 떡의 식감이 끈적끈적(sticky)하다며 낯설어 한다. 한국인들이 즐기는 떡의 식감도 문화적인 것이다. 그런데 증편(술떡)은 일반적인 떡들과 달리 '발효 후' 찐 떡으로 구별되며 그 식감도 다른 측면이 있다. 즉, 일반 떡보다는 이스트로 발효시키는 빵과 비슷한 식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이 떡을 '술떡' 대신 '술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끈거리는 낯선 식감을 주는 일반 떡보다 증편이 외국인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떡집들이 증편의 상품화에 주목하는 것은 아닐까? K-푸드로서 전통음식 '떡'의 문화적 현상은 전통성과 함께 현재성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K-푸드 시대 새롭게 주목받는 '떡'으로서 '증편'이 갖는 유의미성을 증편의 특성으로부터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의 대안적 설명으로서 제시해 본다.

2. 증편의 변이형과 지리적 분포(16),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발표는 표준 변이형 '증편'의 비표준형 변이형들이 단순한 이칭이 아니라 방언지리학적으로 유의미한 지리적 분포를 보인다는 점을 찾아내었다. 그런데 이 변이형들의 지리적 분포가 어떤 유기적 관계에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기정떡'의 '기정'은 기증(起蒸)의 음성 변화일 가능성은 없는가?

발표자는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사용되는 변이형 '기정떡'의 '기정'을 '기주떡' 등의 변이형과 달리 기주(起酒)의 음성 변화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지닌 형태로 분석하고, 그 근거로 『규합총서』를 인용하면서 '기정떡'의 어원을 한자어 기정(起精)으로 추정하였다. 추론 가능한 하나의 가설일 수 있다. 그러나 증편(술떡)이 '발효 후 찐 떡'이고 그 변이형들이 모두 이 떡의 특성을 반영한 기주(起酒)나 기증(起蒸)에서 연원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라도와 강원도에서만 이와 달리 '기정(起精)'이라는 새로운 형태에서 명칭이 유래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기정떡'의 '기정'은 '기증(起蒸)'의 음성 변화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드린다.

4. 고유어 '술떡'은 왜 제외되었는가?

각주 15번에 "고유어에 속하는 '술떡'이 한자어 '증편'이나 '증병'에 비해 그 분포 지역이나 사용자층이 훨씬 더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증편'이나 '증병'은 잘 알지 못하지만, 고유어인 '술떡'을 인지하고 어렸을 때는 보편적으로 '술떡'이라고 했다는 제보자들이 적지 않았"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술떡'이 '증편'과의 관계에서 분석 대상의 대표형이나 다른 변이형들과의 관계에서 대표성이나 의미가 함께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음식명 간의 위세와 관련하여 한자어와 고유어가 가지는 언어 태도가 반영된 것인지, 이와 함께 상품화 과정에서 상품명에도 이러한 언어 태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설명을 부탁드립니다.